차차석 박사의
## 불교공부 ㄱㄴㄷ

### 무아(無我)이야기(1)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무아론이 있다. 무아(無我)란 한자를 풀이하자면 내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범어로 나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트만이며, 이것에 부정 접두사인 a를 붙여 이루어진 안아트만을 무아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我)를 의미하는 아트만이란 용어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이미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트만은 우주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땅에도 물에도 공기에도 인간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다. 전우주를 통일하고 있는 근원적 요소라는 점에서 인도사상의 핵심이다.

아트만은 우주의 통일자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역시 존재할 것이란 점에서는 시간적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아트만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불변의 요소이다. 따라서 아트만이 있기에 인간은 끊없는 윤회를 반복하더라도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트만 이론은 윤회론에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불변의 요소인 아트만이 있기에 인도의 브라만 사회에서는 계급모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브라만, 왕족, 평민, 노예는 이미 각자의 아트만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다는 사고가 그것이다. 즉 노예의 종성은 노예로, 브라만의 종성은 브라만의 종성으로서 영원한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수행을 통해 깨닫는 길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신분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고, 직업의 폭이 정해지게 되었다.

## 자아에 대한 집착 · 소유 등 부정
## 印 계급사회 인습타파 위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무아설은 이상과 같은 인도사회의 인습과 사고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설된 가르침이다. <잡아함경>1권 10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아(我)가 아니고, 또한 나의 본체도 아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로 바라봄이 좋다". 그리고 이어서 감각, 표상, 의지, 의식 등 정신적인 요소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상의 경전뿐만 아니라 많은 경전에서 비슷한 설법을 전개하고 있다.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무아설을 통해 부정한 것은 대략 세 가지라는 사실이다. 아소(我所)의 부정, 아(我)의 부정, 아체(我體)의 부정이다. 여기서 아소란 아소유(我所有) 즉 나의 소유라는 말을 줄인 것이니 '내 것'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 말하는 것은 결국 소유의 고정, 항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난 일이다.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자기 소유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부정한 것이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배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에 대한 부정이란 당시의 사상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던 자아에 대한 사고를 부정한 것이다. 우파니샤드의 사상가들은 개인아를 의미하는 아트만을 보편적인 실재자의 위치로까지 격상시켜, 우주의 주제자로 간주되고 있던 브라만(梵)과 같다고 보고 범아일여의 사상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가 아니다"라 말하는 것은 절대적 무제약적인 자아의 관념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다.

아체에 대한 부정이란 자아의 불변하는 본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대한 부정이다. 범어 메아타(me atta)를 중국의 역경승들이 아체라고 번역했는데 자아의 항구불변하는 본체가 내포되었다는 의미를 고찰했기 때문이다. 한문에서 몸을 의미하는 체(體)란 글자 속에는 불변의 본체, 본성, 본질을 가리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육체가 소멸한 뒤에도 영혼이 남아 영겁을 윤회한다고 말할 때는 불변의 본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我)이라 말한다. 결국 인도 전통의 윤회설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 아체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들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그와 같이 보고 분별의식을 멀리한다. 멀리하기 때문에 탐욕을 벗어난다. 탐욕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지(解脫智)가 생겨서 '내 방황의 삶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행하였다. 이루어야할 것은 이미 다하였다. 이후에 다시 방황의 생을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 깨닫게 된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 지극한 귀의가 성불이르는 첫 걸음

지상 백고좌

## 진 철 스 님

(전 마곡사 주지)

엄동설한에 활짝 핀 매화 한 그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분재 농원을 하는 분이 매화꽃 같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지고 왔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차 한 잔을 대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 보살님으로부터 매화꽃 보다 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보살님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각박한 세상살이의 온갖 풍상을 겪으며 두 딸을 키웠는데 그 중 한 명은 출가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고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왜 따님을 출가시키려고 하느냐고. 그 보살님은 5년쯤 전에 우연히 반야심경을 해설한 책 한 권을 얻게 되었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 한 번 읽어 본 것이 두 번, 세 번 연거푸 읽게 되었고 나중에는 달달 외울 수 있을만치 그 책을 읽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도 조금씩 이해가 가고 마음이 즐거워 지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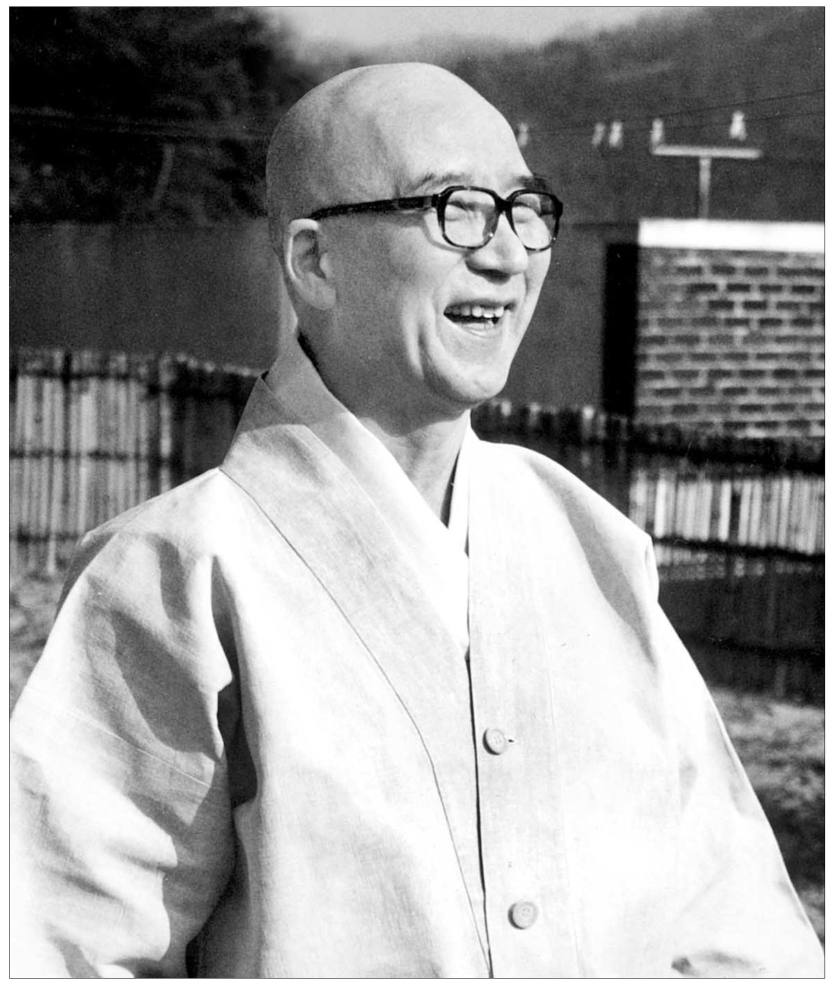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농사꾼이 그토록 간절하게 반야심경을 읽었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아(發芽)된 불심이 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두 딸 중 한 명은 비구니가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살님이 가고 난 뒤 나는 매화 향기를 맡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불성이라는 씨앗을 성불의 꽃으로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불심이 싹튼 그 보살님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가장 좋은 인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것이야 말로 중생고를 여의고 밝은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귀의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의지하라는 것일까요?

불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성은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낳기도 전의 본래 그 자리, 우주적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중생심을 여읜 곳입니다. 오랜 업장을 통해 형성된 온갖 악습을 떨쳐 버리고 가장 청정하고 순진무구한 자연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불 하는 것입니다. 귀의란 자신의 본래자리, 성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내는데서 시작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생이 귀의 하는 곳은 바로 삼보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의지의 집합체인 승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삼보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같은 컴퓨터 시대에 비유하자면, 불보는 하드웨어이고 법보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그리고 승보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진철스님은 우주법계의 원동력인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불국토를 이루는 근원임을 강조한다.

## '본래자리' 돌아갈 좋은 인연 만드는 삶 돼야

불보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스승으로서의 자리에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서의 불보는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의지처인 것입니다. 법보는 불보에 이르는 다양한 길, 즉 성불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팔만사천의 경전과 수행법 그리고 방편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여 법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법보에의 귀의라 할 수 있습니다.

승보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귀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승보는 승가공동체, 수행공동체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행하는 무리로서의 승보는 청정성과 부단한 정진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승보는 스님들의 집단 즉 승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류를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보가 중생들의 진정한 귀의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세간인 승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지역에서 살아 보았는데 불교에 대한 인식이 지방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의 길에서 스님과 재가자가 싸움을 하면 지나 가는 사람들이 재가자를 나무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스님에게 그러면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 "세상 말세다. 중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라며 등을 돌립니다.

언뜻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 그 지역 사람들은 귀의심이 있고 뒤의 경우는 귀의심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중생이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려는 마음이 움트지 않으면 불법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님과 재가자의 싸움을 눈으로 보느냐 자신의 불성에 반조한 마음으로 보느냐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가자가 귀의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덕의 인연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답게 양심적으로 정갈하게 사는 가운데 수시로 귀의의 인연이 다가오고 형성되는 것이니 그 찰라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불보 항상 여여한 하드웨어
### 법보 지혜 펼쳐진 소프트웨어
### 승보 불법실천의 운영자
### 삼보는 우주 순환의 원동력

이미 숙세의 인연을 통해 불법에 귀의한 승단은 과연 중생들의 귀의를 받을 자세가 바르게 갖춰져 있는가에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한국불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비판을 함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것은 접어두고 비판 받는 대목들을 점검해서 병든 곳을 치료해 보다 건강한 승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쉽게도 우리 승단은 스스로에게 냉철한 점검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이라고 추앙 받는 분들은 많은데 진정 큰 감동과 감화로 세상을 밝게하고 중생고를 덜어주는 큰스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원 지대방이나 강원 강단에서 큰스님 노릇 백년 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하루를 헌신하는 실천적 의지가 세상을 더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승들은 해외의 고승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습니다. 달라이라마나 틱낫한, 대만의 성운스님 등이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모두 세상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단박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법문을 하거나 친견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권위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다니고 고통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눈길을 주는데서 세계인들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세상 속으로 자비를 회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처럼, 평생을 한글대장경불사, 어린이 포교, 복지사업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종단 행정을 할 당시 친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석주스님에게 '도시 종정'이라는 애칭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스스로 출세간의 위의와 정신을 잃지 않는 분이야 말로 이 세상에 힘이되는 큰스님일 것입니다. 그런 스님이 많아야 보다 많은 중생들이 귀의할 곳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스님들이 스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중생들은 귀의할 곳을 잃게 됩니다. 요즘 일부 지식인들이나 직장인 불자들이 스님을 모시지 않고 법회를 하고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스님이 없다는 답답함을 그렇게 항의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귀의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귀의하는 중생에 대한 승가의 한량없는 사랑과 귀의하는 중생의 변함없는 존경심이 어우러질 때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자리, 본래 성품 그대로의 청정으로 돌아가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데서 정토의 새벽은 열리는 것입니다. 승단과 재가자들이 함께 여는 정토의 새벽에 '즉견여래(卽見如來)'의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보와 법보는 3천년전부터 항상 여여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에 그 보배를 쓰는 방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을 가장 잘 쓰는 지혜를 얻기 위한 진정한 귀의가 없다면 세상은 바로 악마의 소굴로 변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의식의 변화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이야말로 승가와 재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절이어서 승가의 반성과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미 우리는 삼보에 귀의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한번 귀의의 참 뜻을 되새기고 정진의 고삐를 가다듬으면 누구나 즉견여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 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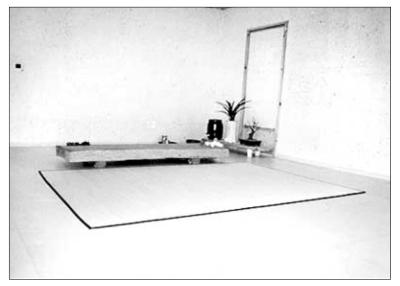
### 기자가 본 진철스님

"놓고 살려고 시골로 도망 온 사람을 왜 찾아 온다는 건지 알 수 없네…"

진철 스님은 기자의 방문을 한사코 거절 했었다. 이제 동분서주하던 시절인연들을 하나씩 놓으려는데 굳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거처하는 토굴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아 오래전부터 스님을 모셔 온 한 불자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새해 인사를 간다기에 따라 붙었던 것. 막상 스님의 거처에 당도하니 의외로 따듯하게 맞아 주었다.

"허허, 기자들이란…"

진철 스님의 방은 다탁 하나와 화분대 세 개 그리고 방석 몇장이 전부였다. 방에 들어섰을때 가운데 놓인 방석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오전과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세 차례씩 혼자 죽비를 치고 참선을 한다. 승용차도 처분했다. 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찾아온 손님들도 가급적 짧게 만난다. 스님은 총무원의 국장, 부장을 비롯한 각종 종무행정 경험이 많다. 복지활동도 상당히 빨리 시작해 강릉자비원을 열어 10여년 운영했다. 대사회적인 단체에서 이사장이나 고문 등을 맡은 경력도 두텁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기 위해 충남 유성과 조치원 중간 어름의 농촌 마을에 토굴을 지었다. 이름도 붙이지 않은 토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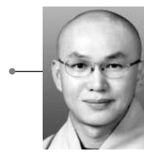
◇진철스님이 거처하는 단촐한 토굴의 겉(사진 위)과 속(아래).

### 행정 · 복지 두터운 경험…토굴서 '놓는 공부'

"단칸 집에 무슨 이름이 필요해. 나에게 붙었던 많은 이름들을 떼어 내려고 온 곳에 또 무슨 이름표를 붙이란 말인가?"

진철스님이 흙벽돌 집에서 꾸리고 있는 단촐한 살림살이가 오히려 커다랗게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비워내려는 노력의 힘 때문일 것이다.

진철스님은 1940년에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받아 종단행정과 사회복지 활동의 기반을 닦았다. 1964년 공주 마곡사에서 출가해 마곡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낙산사 주지,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남전스님의
## 스님이야기
퇴휴스님 (下)

퇴휴스님이 개원 한 법장사는 올해로 12살이 되었다. 법장사는 생활(生活)불교, 실천(實踐)불교, 대중(大衆)불교의 기치를 들고 그동안 대단한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양적인 면에서 보자면 장동역 앞 20여평의 건물 귀퉁이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2년만에 중계동의 요지에 위치한 건물에 200여평을 분양받아 확장 이전했고, 다시 7년만에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단지내에 300여평의 종교부지를 확보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주변의 여러 곳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10여년 만에 이루어낸 포교의 성과다.

또 질적인 면으로도 대단하다. 도심포교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산불교대학을 운영하여 일년에 두 기수씩 지금까지 25기 정도를 배출했고,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거사회, 신도회등의 조직과 불교대 동창회, 각 지역의 법등법회등의 신행모임을 갖추어 기도와 수행, 포교와 교육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 내고 있다.

그림 · 문병성

또한 스님은 지역 포교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역량을 보여준다. 도봉경찰서 경승실장, 57사단 향승위원장등을 맡아 원만하게 소임을 보았다.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나도 퇴휴스님 덕분(?)에 스님 뒤에서 경승실, 향승위원회의 총무 소임을 맡았었다. 그리고 많이 배웠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스님 포교당의 사업규모와 내용이 가히 본사(本寺)급이라고 할 수 있다. 법장사의 이러한 성장까지 스님의 노력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이다. 특히 개원 당시의 어려움은 직접 포교당을 운영해 보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그만 포교당을 운영하는 나도 안내전단 배포, 절을 절답게 꾸미기 위한 여러 편의시설 설치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법장사의 규모를 보면 그 어려움이 상상이 간다.

가끔 스님과 만나 절의 여러 문제와 운영등에 관한 담소를 나누며 지난 날의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를 듣는데 기억에 황벽희운(黃檗希運)선사의 매화꽃 이야기가 있다.

"매화꽃은 여러 가지의 꽃 가운데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며,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매화는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낸다. 그리하여 이른 봄에 화사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듯이 모든 영광과 기쁨 뒤에는 반드시 수 많은 인고(忍苦)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아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스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불법을 전등(傳燈)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란다. 전등이란 말은 법의,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전한다는 의미이다.

퇴휴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신도들에게도 항상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정진하자고 말한다. 오히려 희망과 진리의 등불이 꺼질 것을 두려워 하자고 한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함께 하자고 강조한다. 그리고는 몸소 모범이 된다. 또한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일한다. 그럴 때 스님의 목소리는 사자후(獅子吼)에 다름 아니다. 얼마나 힘찬지 그런 이야기를 들던 우리 절 신도들은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 그것은 자신감이고 신념이다.

### 법장사 창건…눈부신 도심 포교
### 좋은 절 좋은 불자 가꾸기 헌신

지금까지 포교당에 살면서 느낀 점이라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님의 말처럼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이다. 이런 고통의 아픔이 밑거름이 되어 다른 어느곳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행생활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새삼 느낀다. 욕심낼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길 발원할 뿐이다. 훌륭한 불자가 되기 보다는, 또 훌륭한 절이 되기 보다는 좋은 불자, 좋은 절을 가꾸고 싶다. 나는 이러한 작은 소망을 오늘도 퇴휴스님에게서 배운다.

■서울 창동 정혜사 주지

기적의 신물질(생체활성화물질) BeautyScan / HealthScan Series

BeautyScan/ HealthScan 이란? 당사연구소의 핵심개발물질 고유명사이며 순수한방생약성분에서 추출한 주요성분을 법제와 구증구폭 처리하여 개발된 신물질(생체활성화물질)로서 BeautyScan은 피부에 HealthScan은 인체내에 작용하여 생체리듬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특성화 물질입니다.

출시품목(화림한방화장품)
☜ 한방기능성화장품(15종)
한방기능성비누(8종)
출시품목(화림한방바이오)
☜ 한방선식(4종)
한방다이어트(2종) ☞
☜ 건강보조식품(2종)
천연향(6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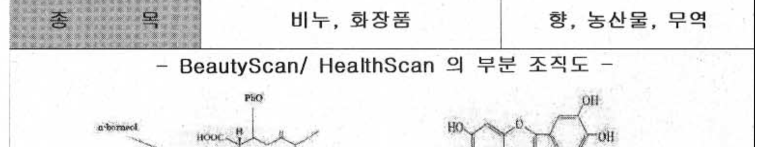
♠ 현재 "다음쇼핑몰" http://shop.daum.net/ 입점
전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서울25개구, 전국 16개 지구 판매계약
인터넷쇼핑몰 "소호마트" http://www.sohomart.co.kr 입점
2002 국제생활용품박람회 (MBC주최-대구전시컨벤션센터) 참가
2003. 1 일본(도쿄) 수출계획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화장품/ 건강식품, 다이어트 사업에 참여하실 분(소자본 가능)
(주)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주)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전국지사 대리점 ◈ 투자자모집

♣ 투자자 모집 ♣

| 업 체 명 | (주)화림한방화장품 | (주)화림한방바이오 |
| --- | --- | --- |
| 법 인 번 호 | 170111-0217712 | 170111-0182965 |
| 사업자등록번호 | 504-81-45677 | 504-81-47807 |
| 최 초 설 립 일 | 2001. 3. 28 | 2001. 3. 28 |
| 본 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번지 | |
| 업 종 | 제조 | 제조, 도매 |
| 종 목 | 비누, 화장품 | 향, 농산물, 무역 |

- BeautyScan/ HealthScan 의 부분 조직도 -




고대 선인들의 비전과 불가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신개발 생체활성물질을 각종 화장품/비누 및 식품에 응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한방바이오 제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저희 회사를 알리 고저 합니다. 수입의 재투자로 인한 적극적인 제품개발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사세확장과 자체 영업망 구축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추후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사로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 앞장 서는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번지 ☎ 053)313-2711~5 FAX : 053)313-2716 http://www.hrcos.com

기쁜소식!

수맥파, 단 30,000원에 말끔히 잡는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바이레이
보이지 않는 흉기, 밤새 괴롭히는 수맥파에서
누구나 해방되는 건강시대가 열렸다!
손쉽게 잘라서 깔면되는 획기적인 바이레이
수맥파는 유해파...
당신의 잠자리는 수맥파로 부터 안전할까요?
수맥파를 흡수하는 바이레이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바이레이는 펼쳐서 깔기만 하면 되는 간편하고도 저렴한 제품으로 침대 매트리스, 카페트 밑 등등 원하시는 장소 어디나 사용 가능합니다.
바닥장식재 시공 전에도 바이레이를 깔아 건강을 지키십시오.
제조원 : 대원화성주식회사
문의전화 : 02)3158-3351
H·P : 019-281-3850
http : www.bye-ray.co.kr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위궤양, 비만증, 무종, 체력증강 ·갱년기 장애 등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자율신경실조증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지혜정사
한방치료 · 요양 · 휴양
새절 지혜정사는 3대째 내려오는 한의술을 불교로 회향코져 창건한 북한강과 양수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땅의 기운이 힘차 물맛이 좋고 조용하며 고요한 청정도량입니다.
※ 1인 1실 숙식 월 30만원
(침술, 진료, 봉사)
(비구니 스님 특별 혜택)
※ 전주, 군산식 맛깔스런 공양 올립니다.
◆절 : 경기도 마석 담내리
☎ 031-592-8418
◆한의원 : 서울 제기동
☎02-966-5725
◆휴대전화 : 011-790-572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